

보도자료



바스프의 이중 타이어 시스템, 오포(ofo) 공유자전거의 안전성·편안함 높여

- 서로 다른 밀도의 엘라스토판(Elastopan®)으로 제작된 이중구조 타이어 솔루션으로 최적의 내구성과 뛰어난 편안함 제공
-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탁월한 표면력으로 안전성 높여
- 솔리드 타이어가 펑크, 펌프, 패치 제거: 기존 고무 타이어 대비 약 30% 중량 감소

2017년 10월 11일 - 글로벌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는 자사 폴리우레탄 제품인 엘라스토판(Elastopan®)을 적용한 이중 타이어 시스템이 중국 최대 자전거 공유 서비스 기업 오포(ofo)의 자전거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중 밀도 기술이 적용된 폴리우레탄 타이어의 외부 층은 거친 노면에도 강하며 내부 층은 높은 소재 복원력으로 뛰어난 충격 흡수를 제공한다. 또한 새로운 타이어 시스템은 번거롭던 내부 튜브 패치 및 수리 필요성도 없앨 수 있다.

엘라스토판은 미끄럼 방지 성능을 갖고 있다. 제품의 탁월한 표면력은 사용자에게 뛰어난 안전성을 제공하며, 독자적인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 디자인을(tread design) 가능하게 한다. 이 혁신적 솔루션은 기존의 고무 타이어보다 약 30% 더 가벼워 사용자 입장에서 자전거를 더욱 조작하기 쉽다.

오포 CEO 및 창립자인 다이웨이(Dai Wei)는 “타이어의 품질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는 오포의 글로벌 확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써, 앞으로 우리 서비스를 순조롭게

미디어 문의

한국바스프
권태경 홍보팀장
Phone: (82) 2 3707 7508
Fax: (82) 2 3707 7889
lauren.kwon@basf.com

홍보팀 김나리 과장
Phone: (82) 2 3707 7507
Fax: (82) 2 3707 7889
nari.kim@basf.com

이화정 차장
Phone: (82) 2 739 7054
Mobile: (82) 10 4874 7803
clare.lee@insightcomms.com

한국바스프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6층 100-743
Phone: (82) 2 3707 7506
Fax: (82) 2 3707 7889
<http://www.basf.co.kr>

추진하여 업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고 말했다. 오포는 전 세계 13 개국 180 여개 도시에서 천 만대 이상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8 월에는 북미 지역 내 서비스 확장의 교두보로서 시애틀에 천 대의 공유 자전거를 런칭했다. 오포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C&S 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이달까지 도쿄와 오사카에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다.

엘라스토판은 마모와 화학적 반응 및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다. 타이어의 외부 층은 고무보다 내마모성이 약 3 배 더 뛰어나 거친 노면에서도 내구성이 우수하다. 다이웨이는 “엘라스토판의 이중 밀도 기술 사용으로 타이어 수리 빈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제공하는 자전거의 서비스 수명을 연장한다.” 고 말했다. “이 타이어 시스템은 타이어의 펑크를 방지하고 타이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 손상으로 폐기되는 자전거 수를 줄여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엘라스토판의 이중 밀도 폴리우레탄 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타이어의 내부 층은 타이어의 복원력을 높이는데 최적화된다. 타이어의 이중 밀도 구조는 충격으로 인한 타이어의 진동 감쇠 성능을 약 30% 가까이 향상시켜 사용자의 편안함 및 전반적인 라이딩 수준을 크게 높여준다.

바스프 기능성 재료 사업부문 아태지역 총괄 사장인 앤디 포스틀스웨이트(Andy Postlethwaite)는 “바스프의 소재 솔루션이 오포의 새로운 자전거를 더욱 내구성 있고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면서 중국의 자전거 공유 시스템 및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 며, “혁신적인 소재는 설계와 기능성 측면에 영감을 주어 이를 통해 현대 도시 생활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바스프는 안장, 손잡이, 휠의 림, 바스켓, 브레이크 라인 커버, 페달 등 기타 자전거 부품에 대한 소재 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오포 서비스의 세계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스프의 엘라스토판은 모든 색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이중 구조의 각 레이어는 서로 다른 색상으로 제작될 수 있고 단일 공정을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제작되므로 설계의 가능성을 넓혀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on.basf.com/ofoxbas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포(ofo) 소개

2014년 설립된 오포(ofo)는 전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의 거치가 자유로운 자전거 공유 플랫폼이다. 오포는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포는 전 세계 13개국 180개 이상의 도시들에 천만 대 이상의 자전거를 대여, 일일 2천 5백만 건 이상의 거래들을 창출, 40억 대 이상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친환경 자전거들을 2억 명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제공했다.

한국 내 바스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선도적 외국 기업으로서 바스프는 국내 7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원에는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 소재 R&D 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탄, 시흥, 안산 소재에 4개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고객 대상 총 매출액은 약 11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16년 말 기준 1,105명의 임직원이 국내에 근무하고 있다. 한국 내 바스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basf.com/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 그룹 소개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세계 약 11만 4천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 그룹은 화학 제품,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소재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 및 가스 등 5개의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6년 약 58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프랑크푸르트(BAS), 런던(BFA), 취리히(BAS)에서 거래되고 있다.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asf.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